



제 2018-169호

중국

제1회 베이징 인터넷영상물저작권포럼 개최, “공평·공정한 온라인 저작권 관리체계 구축” 한 목소리

북경사무소

■ 현황

- 2018년 베이징 제1회 인터넷영상물저작권포럼(2018北京首届互联网影视著作权高峰论坛)이 지난 10월 11일 베이징회의센터에서 열림
- 이번 포럼에는 베이징시 신문출판광전총국,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 등 관계 부처의 공무원, 학계,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서, “온라인 영상저작물의 시장가치와 사법보호”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함
- 참석자들은 “온라인 영상저작권의 법제화 건설을 위하여, 영상업계의 온라인 저작권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영상 관련 저작권 소송 및 조정 등의 영역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베이징시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함
- 최근 중국 영상산업과 인터넷산업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영상물 저작권분쟁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저작권 거래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창작자의 창작열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중국에서 상위 100위권 안에 드는 주요 인터넷 기업의 과반수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이징시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 1위에 해당함. 따라서 최근 베이징에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영상 저작물 관련 저작권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근래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내용

-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크게 관련 행정부처 대표자,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장, 온라인 영상 플랫폼 관계자 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베이징시 신문출판광전총국 따이웨이(戴维)부국장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포럼의 목적을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저작권 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평·공정한 온라인 영상저작권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온라인 영상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최근 설립된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의 분쟁 조정과 소송 등 영역에서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 또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사회경제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 수호, 침해행위에 대한 근절, 사법 심판의 효율성 제고, 사법의 공신력(公信力) 수립, 영상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베이징시 신문출판 광전총국은 영상저작권 업계를 관장하는 행정부처로서, 영상저작권 거래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향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인터넷 법원 등 사법기관 및 영상저작권 관련 협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영상산업을 관리할 것이며, 법률보호체계를 더욱 개선해 개방되고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평·공정한 영상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 베이징시 영상산업의 질서 있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함



- 베이징시 인터넷법원 장원(张雯)원장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한 해 동안 베이징시 각급 법원이 수리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금융, 구매 등 인터넷 법원 관할 사건의 수량은 45,382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베이징시 소속 다양한 법원이 이들 사건을 처리했지만, 향후 인터넷 법원이 이들 소송을 통일적으로 수리하여 처리할 예정”임
 - 금년 9월 9일 설립된 인터넷 법원이 설립 당일 처음으로 수리한 사건은 더우인(抖音, 틱톡)이 바이두를 상대로 제기한 공중송신권 침해 사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쇼트 클립 관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기도 함
 - 현재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보면 온라인 저작권(网络著作权), 저작인접권의 권한 귀속 및 침해 사건, 이 두 유형의 사건이 1,43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이 수리한 전체 사건의 48%에 해당하는 수치임
-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 장링(姜颖)부원장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전국에서 수리한 저작권 사건은 137,2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 베이징시가 수리한 사건은 22,701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함. 그중 온라인 저작권 사건은 15,000건으로 저작권 사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현재 저작권 침해 사건, 특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사건의 심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면서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심리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또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심리 과정을 설명했는데, 장부원장에 따르면 소송심리 과정은 “①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가에 대한 판단, ②원고가 권리주체인지에 대한 심사, ③피고가 침해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 ④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⑤피고의 민사책임 확정”의 순으로 이뤄짐



- 그중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권리주체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자주 재판에서의 쟁점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영상저작물의 서명권, 이용허락, 양도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저작권의 주체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함
- 피고의 침해행위 여부 판단에서는 “접촉(접근) +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사유로는 주로 “독립창작,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공정이용 등 3가지가 포함된다”라고 함
- 저작권 침해 시 민사책임으로는 침해중지, 공개사과 및 손해배상 등 3가지 방식이 이용됨
- 포럼에 참석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알리바바 문화엔터테인먼트 그룹 법무책임자 리웨이(李巍)는 “불법 링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서명 문제, 배상 액수의 확정, 증거수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은 현재 알리바바 산하 영상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술의 힘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 개방된 플랫폼에서의 전자서명,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공증클라우드(公证云), 빅데이터 분석, 워터마크(watermark), 알고리즘 계산법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힘
 - 텐센트 법무책임자 증레이(曾磊)는 “텐센트는 저작권 구매, 자체 제작, 타 플랫폼과의 협력 등에 있어서 정품화 경영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텐센트 스피ن(腾讯视频)의 일관된 입장이자 태도이다”라고 밝히고 “텐센트 스피인은 향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 3.0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특히 쇼트 클립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동영상 플랫폼으로서의 심사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힘



- 아이치이의 법무책임자 후웨이(胡荟集)는 “그동안의 경험 축적을 통하여, 아이치이는 이미 독자적으로 우수한 3대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저작권 심사 메커니즘, 모니터링 메커니즘, 사법 구제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베이징시와 같은 지방정부 또한 최근 저작권 산업의 진흥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에서 중국 인터넷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주요 ICT 기업의 저작권 거래 및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요구됨

■ 출처

- 국가판권국망(国家版权局网)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88106.html>